



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윤석민이 투구하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대구 삼성전에 이어 2년 만의 등판이며 선발 등판은 만 2년이 넘었다. 같은 해 4월 17일 광주에서 넥센전에 선발 등판했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설렘 가득한 복귀전... 팬들은 따뜻한 박수

KIA 윤석민 605일만에 1군 마운드 올라

두산전 4.2이닝 2피홈런 포함 8피안타 5실점
"스피드보다 제구 아쉬워... 내 자리 만들겠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의 복귀전은 설렘, 지구, 결승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KIA 윤석민은 지난 2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605일 만에 다시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 선발로 나온 윤석민은 95개의 투구수와 함께 4.2이닝 8피안타(2피홈런) 4볼넷 2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5회를 넘기지 못한 게 아쉽지만, 막강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복귀전을 치렀다. #설렘 윤석민은 등판 다음 날인 3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오랜만에 1군 마운드에 서니까 긴장도 하고 내 페이스대로 못 끌고 갔다"며 "2년 만의 등판이라 긴장도 했는데. 다음에는 설레는 감정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첫 등판을 이야기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 500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6번째 매진 사례를 이뤘다. 주말 경기인 데다 윤석민이 등판하면서 경기 시작 1시간 45분 전에 일찍감치 표가 들어났다.

오랜만의 1군 무대라 긴장을 한 베테랑, 관중들에게도 설렘 가득한 복귀전이었다. 관중들의 팬들은 윤석민이 처음 마운드에

오를 때 그리고 5회 2사 1·3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올 때 '윤석민'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윤석민은 "경기를 하면 많이 집중하는 편이다. 팬들의 응원 소리로 들렸지만 집중하느라 만원 관중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 첫 등판이 긴장은 많이 됐다"고 언급했다.

#지구 "당황했다"며 전날 경기를 돌아본 윤석민. 그는 마운드에서 표정 변화가 없는 '포커페이스'다. 하지만 2일 등판에서는 몇 차례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민은 "지난 2군 마지막 등판 때 밸런스가 갑자기 무너졌다. 1군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썼는데, 2회 연속 볼넷을 내줬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당황했다"며 "지구가 날랐다. 제구가 안 되다 보니 변화구 승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석민의 지구 최고 스피드는 142km에 그쳤다. 하지만 스피드보다는 제구가 더 아쉬웠다. 이날 던진 41개의 지구 중 21개가 스트라이크존에 꽂혔고, 20개는 볼 판정을 받았다.

지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날 윤석민은 지구보다 많은 45개의 변화구를 구사했다.

지구가 키워드가 됐지만 윤석민은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괜찮다는 반응이다.

윤석민은 "어깨가 아프고 나서 팔 각도를 내렸다. 어제 경기 영상을 보니 손목 각도로 내려왔다. 그래서 직구 궤적이 좋지 못했다. 투구폼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회전만 좋으면 볼 궤적이 좋아지니까 관창을 것이다. 단지가 보면 반드시 스피드도 더 나올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의 주무기인 슬라이더의 스피드 상승도 긍정적이다. 윤석민은 복귀전에서 최고 구속 137km의 슬라이더를 선보였다.

윤석민은 "슬라이더는 내 주무기다. 직구 스피드에 비례하면 슬라이더 스피드가 오르는 했지만 각이 작았다. 각이 커지면 헛스윙도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결승선 이제 막 출발선을 나선 윤석민은 마지막, 결승선을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완벽한 복귀라는 게 윤석민의 이야기다.

윤석민은 "2-3경기 하고 합령으로 가려고 돌아온 게 아니다. 잘해야 한다"며 "시즌 끝까지 가고 싶다. 불발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내 자리를 만들고 싶다. 몸 상태는 충분히 괜찮다.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닝'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민은 "(첫 등판에서) 5이닝 3점을 생각했다. 5회는 막아야 한다. 승리보다는 이닝을 많이 끌고 가고 싶다. 중간 투수들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100개 정도는 던져야 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을 것이다. 1군 타자를 경험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데뷔 안타·타점 류승현 "떨립니다"

덕아웃 T 특특

▲머리 아팠어요=포수 한승택에게도 부담 많았던 윤석민의 복귀전이었다. 2일 한승택은 윤석민과 배터리를 이뤄 두산전에 나섰다. 퓨처스리그 첫 등판 때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한승택은 3일 "의미 있는 경기라 신경 많이 쓰였다. 타자들도 워낙 좋아서 생각을 많이 하느라 머리가 아팠다.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웃었다. 한승택은 "슬라이더가 앞선 등판보다 빨라졌다. 지구가 좋지 못했는데 던질 줄 아는 투수라 변화구로 승부를 할 수 있었다. 괜찮았다"고 말했다. 이날 3회 윤석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도루 저지도 선보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승택이다. 한승택은 "도루를 잡기는 했지만 송구 자체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팔 스윙을 짧게 해야 한다"고 전날 경기를 복기했다.

▲떨립니다=덕아웃과는 다른 표정의 '중고 신인' 류승현이었다. 3일 KIA는 잇단 사구로 컨디션이 떨어진 나지완을 빼고 광주일고 출신의 고졸 3년 차 류승현을 콜업했다. 2016년 입단 후 처음 1군에 등단된 류승현은 이날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를 앞두고 류승현은 "떨립니다"라는 말로 첫 무대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류승현은 "지난해까지는 조금만 마음이 많았는데 올 시즌 2군 경기를 많이 뛰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다. 박흥식 2군 감독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삼진이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떨립니다"며 긴장이 표정이 역력했던 류승현이지만 그라운드에서는 다른 모습이 다. 2회 2사에서 김재호의 안타성 타구를

뛰어오르면서 라인드라이브로 만들면서 1군에서의 첫 수비를 소화한 류승현은 2회 데뷔 타석에서 데뷔 안타 그리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데뷔 타점까지 기록했다.

▲또 공 주워야겠네=김기태 감독은 3일 침체한 타선 변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컨디션이 떨어진 나지완을 빼고 류승현을 1군으로 부른 김 감독은 이날 라인업도 신에 선수들도 채웠다. 류승현을 5번 타자로 배치한 김 감독은 6번 박준태(우익수), 7번 오준혁(1루수) 그리고 최정민을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기용했다. 김 감독은 류승현의 선발 기용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또 공 주워야겠다"며 웃었다. 올 시즌 KIA는 첫 기록과 인연이 많다. kt 강백호의 데뷔 홈런, 삼성 양창섭의 데뷔 첫승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난 마산 원정에서는 한승택과 박준태가 프로 데뷔 홈런을 터트리면서 KIA 프런트가 공 회수를 위해 긴급 투입되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지난 3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광주일고 8년만에 황금사자기 우승

대구고 10-2로 꺾어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가 8년 만에 황금사자기를 되찾았다.

광주일고는 지난 31일 목동야구장에서 끝난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대구고를 10-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0년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1983년 제37회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여섯 번째 이룬 황금사자기 우승이다.

32강부터 준결승까지 살얼음 승부를 하며 어렵게 결승에 진출한 광주일고지만 마지막 무대에서는 타선이 일찍 폭발했다.

1회말 투타자 유장혁을 시작으로 김창평-정도웅-한지훈-박시원의 5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먼저 3점을 뽑았다. 광주일고는 선두타자 한지훈이 살아나간 3회에도 박준혁의 적시타와 정건석의 희생플라이 등을 엮어 3점을 만드는 등 일찍 흐름을 가져왔다.

광주일고는 앞선 5경기에서 43이닝 9실점, 평균자책점 1.88의 '잔물 투구'를 했던 대구고 마운드를 상대로 장단 15안타로 10점을 만들면서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했다.

6.2이닝 5사구 6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기록한 선발 정해영이 버틴 마운드에서는한민호-성준민-조정호-박상용

로 이어진 볼넷진이 무실점 행진을 하며 승리를 지켰다.

대회 세 경기에 나와 17.2이닝을 0.51(1자책점)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은 에이스 조준혁이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결승전 승리를 책임진 2학년 정해영이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덕수고와의 16강전에서 결승타를 터트리는 등 17타수 7안타(타율 0.412) 3타점을 기록한 '주장' 김창평은 수훈상의 주인공이 됐다.

또 목교의 우승을 지휘한 성영재 감독이 지도상, 박현필 광주일고 부장이 지도상, 이승오 광주일고 교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장학생 조준혁 MVP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벌이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타이거즈 러브투게더'가 성과를 내고 있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장학생인 광주일고 3학년 조준혁이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팀 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 3경기에 나온 조준혁은 17.2이닝을 소화하면서 13피안타 5사구 11탈삼진 3실점(1자책점) 평균자책점 0.51의 호투를 선보였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자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국 초·중·고 야구선수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브투게더 야구 유망주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학년과 형편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가운

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선수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KIA와 기아차는 지난 5월 전국 초·중고 야구선수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중 한 명이 조준혁이다.

지난 2017년에는 동성고 출신의 김석환이 KIA에 입단하면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장학생 출신 중 1호 프로야구 선수가 탄생하기도 했다.

한편 KIA와 기아차는 오는 7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열고, 이날 시구자로 조준혁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